

광주·전남, 전국체전 근대 5종 금메달 행진



광주 전웅태, 4종 개인전 금·단체전 은메달
전남 김영하 개인전·단체전 금...2관왕 기록

광주·전남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근대5종에서 사이 좋게 메달 행진을 펼쳤다. 전남은 신예 김영하(전남도청)를 앞세워 2개의 금메달을 차지했고, 광주는 '올림픽메달리스트' 전웅태(광주시청)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영하는 지난 17일 부산 광명고(펜싱)·부산체육고(장�물·수영·레이저런)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5종) 경기에서 총점 1579점으로 개인전 정상에 올랐다. 김영하는 이어 17일 치러진 남자일반부 5종 단체전에서 '베테랑' 서창완과 호흡을 맞춰 총점 3102점을 합하며 2관왕에 올랐다. 광주에서도 금메달리스트가 나왔다. 18일 진행된 남자 일반부(4종) 경기에서는 광주 시청 전웅태가 1221점으로 개인전 1위를 차지하며 명성을 입증했다. 전남도청 박상구는 1204점으로 개인전 2위에 올랐다. 남자일반부 4종 단체전에서도 광주와 전남은 선두권 경쟁을 벌여 나란히 시상대에 섰다.

광주시청은 전웅태·윤상민·성진수 조가 총점 3516점으로 단체 은메달을 보태고, 전남도청은 박상구·이동기·양우승 조가 3506점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일반부 첫 출전에서 2관왕에 오른 김영하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제 나이가 어려 형들에 비해 팬싱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면서도 "(격정과 달리) 첫 종목인 펜싱부터 잘 풀어나갔다. 이어진 장�물·수영·레이저런까지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까지 금메달까지 거머쥐면서 '베테랑-루키' 정석을 보여준 전남도청 국가대표 서창완은 이날 개인전에서 8위를 기록했다. 그는 "올해 시합을 많이 뛰면서 힘들었는데, 전국체전이 늦게 있는 만큼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다"며 "그래도 영하랑 같이 훈련 열심히 하면서, 준비한 만큼의 결과가 따라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근대 5종 올림픽 메달리스트 전웅태는 이전 종목



광주시청 근대4종에 출전한 성진수·전웅태·윤상민 선수가 메달을 들어보이며 기뻐하고 있다(왼쪽). 근대5종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전남도청의 서창완과 김영하 선수.



점수 합계 전체 7위로 레이저런을 시작했지만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국가대표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전웅태는 "팬싱에서 많이 주춤거려서, 레이저런에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계속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되뇌이며 경기를 치렀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전남도청 '최고령' 박상구 역시 베테랑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의도치 않게 성적이 나왔다. 같은 팀 친구들이 잘 따라줬고,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메달을 이뤄낸 것 같다. 아내가 많이 내조해줬는데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며 "원래 사격이 불안했는데, 경기 때는 연습했던 부분이 잘되었다. 11월에 있을 국제 선발전을

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전남은 근대5종 개인·단체전 모두 메달권에 오르며 '투톱 체제'를 과시했다. 한편, 김영하의 동생 김강영(전남체고)은 19일 진행된 남자18세이하부 경기에서 총점 1073점으로 개인전 39위를 기록하면서 '형제 메달'을 놓쳤다. /부산·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안정적 세대 교체...광주·전남 육상, 전국체전서 저력 과시

전남 女 고등부 400m 금·은 싹쓸이
광주시청 강다슬 은퇴경기서 4위 등

전남에서는 신예와 베테랑이 고르게 두각을 드러냈고, 광주는 은퇴 무대와 함께 값진 메달을 수확했다.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펼쳐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트랙과 필드 경기에서 광주·전남 선수들이 잇따라 메달을 따내며 지역 육상의 저력을 보여줬다. 여자 고등부 400m에서는 최지우(광양하이텍고)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같은 종목에서 신규리(전남체고)가 은메달을 차지하며 전남이 금·은을 싹쓸이했다. 일반부 여자 400m에서는 이아영(광양시청)이 정상에 올라 전남의 '중장거리 강세'를 이어갔다.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이은빈(해남군청)에게 쏠렸다. 지난해 전남체고 소속으로 여고부 100m·200m·400m를 석권했던 그는 올해 일반부 첫 출전에서 여자 100m 금메달을 거머쥐며 세대교체의 중심에 섰다. 이은빈은 이날 11초91을 기록하며, 목표로 세웠던 11초69를 넘지 못한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그는 "예전 때는 11초82로 SB(올해 최고기록)랑 가까웠지만, 결승에서는 PB(커리어 최고기록)에도 미치지 못해 스스로 레이스에 아쉬움이 크다"며 우승의 기쁨보다는 기록에 대한 아쉬움을



19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일반부 여자 100m 이은빈(해남군청)과 400m 이아영(광양시청)이 송진호 전남체육회장(가운데)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일반부 여자 100m에 출전한 강다슬(광주시청)은 이날 경기를 끝으로 은퇴한다.

이야기했다. 다리 부상으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이은빈은 "(오늘 경기) 부담감이 긴장도 많이 됐다.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아직 경기 많이 남았으니까 2년 차는 지금보다 발전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는 21일 400m계주를 앞두고 있는 이은빈은 "목표는 메달권이다. 전라남도 팀으로 언니들과 다같이 뛰는 것이라,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광주시청 간판이었던 강다슬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며 이은빈과 함께 마지막 레이스를 펼쳤다. 이날 여자일반부 100m를 12초19로 완주해 4위를 기록한 강다슬은 "3주 전까지도 다리가 좋지 않

아 시합을 못 뛴가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완주를 하게 되었다. 마지막 경기라 시상대에 오르고 싶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후회는 없다"고 마지막 경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남자 일반부 400m에서는 모일환(광주시청)이 동메달을 추가했다. 박서진(목포시청)이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동메달을 따내면서 필드에서도 메달 소식이 이어졌다. 이로써 광주·전남은 단거리와 중장거리, 필드까지 고른 성과를 내며 전국체전 육상 종목에서 강세를 확인했다. 특히 고등부와 일반부를 잇는 세대교체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아시안게임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새로운 경쟁 구도가 주목된다. /부산·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소녀 역사' 광주체고 김체량, 역대 '3관왕'

김체량(광주체고)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18세이하부 87kg급이상 3관왕에 올랐다. 김체량은 지난 18일 부산남구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에서 인상 108kg, 용상 145kg, 합계 253kg을 성공하며 인상·용상·합계 3개의 금메달을 모두 목에 걸었다. 이번 우승은 지난 7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아시아유소년역도선수권에서 보여준 '월드 클래스' 기량의 연장선이다. 당시 김체량은 유스 여자 최중량급(+77kg)에

서 인상 104kg, 용상 145kg, 합계 249kg을 들어 올리며 용상과 함께 '세계유소년 신기록'을 작성하고 정상에 섰다. 국제역도연맹(IWF)이 2025년 6월 체급 개편과 함께 제시한 유스 최중량급 세계 기준 기록(용상 140kg, 합계 244kg)을 모두 넘어선 기록이었다. 대회 조직위원회와 아시아역도연맹도 김체량을 유스 부문 최우수선수로 조명했다. 전국체전 무대에서도 '업그레이드'는 계속됐

다. 김체량은 지난해 처음 출전했던 전국체전에서 용상87kg급이상 인상 99kg, 용상 134kg, 합계 233kg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합계가 20kg 늘어난 253kg을 기록하며 국내 대회 최고 성적을 다시 썼다. 무엇보다 용상 145kg을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정확하게 재현, 국제무대에서 증명한 용상에서의 강점을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한편 이날 역대 76kg급에 참가한 이유혜(정광고)는 인상과 용상에서 각각 90kg, 112kg을 기록해 값진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부산·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광일·무등리그 결승 진출팀 확정

광일, 목포 블루제이스·THE J
무등, 피지컬·센프렌즈 진출
26일 함평야구장서 결승전

무등기 우승컵을 다툰 결승 진출팀이 확정됐다. 제1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4강전이 19일 함평야구장에서 진행됐다. 광일리그에서는 목포 블루제이스와 THE J가 결승행을 확정했다. 무등리그 준결승 승부에서는 피지컬과 센프렌즈가 승자가 됐다. 목포 블루제이스는 챌린저스를 9-2로 제압했다. 2화까지 팽팽한 승부를 펼친 블루제이스가 3회 선취점을 만들었다. 선발 박문욱이 4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기싸움을 이어갔고, 4회말 대거 8득점에 성공하면서 승부를 끝냈다. 블루제이스의 박도현은 4회 스리런을 날리면서 대회 첫 홈런을 장식했다. THE J는 석산고 야구단을 상대로 9-2 역전승을 거뒀다. THE J는 1회초 2실점은 했지만 이후 주규완-김주형으로 마운드를 굳게 지켰다. 3회 3-2 역전에 성공한 THE J는 4회 2점을 보냈고, 5회 4점을 만들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피지컬은 '행운의 승리'를 거두며 무등리그 결승에 진출했다. 파죽지세를 상대한 피지컬은 1회초 4실점은 했지만 추격을 이어갔고 6회말 결국 승부를 6-6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시간 제한으로 추첨으로 승부를 가리게 됐고, 5-1 승자가 됐다. 센프렌즈는 우리OAGA와의 대결에서 10-3으로 승리하면서 피지컬과 무등기 우승컵을 다투게 됐다. 1회말 3점을 만들면서 기싸움에 나선 센프렌즈

1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기 2주차 전적	
광일리그 준결승전	
◆1경기 <6회 시간제한승>	
챌린저스	0 0 0 0 2 0 - 2
목포 블루제이스	0 0 1 8 0 × - 9
▲승리투수 : 박문욱	
◆2경기 <6회 시간제한승>	
석산고야구단	2 0 0 0 0 0 - 2
THE J	1 0 2 2 4 × - 9
▲승리투수 : 주규완	
무등리그 준결승전	
◆1경기 <7회 추첨승>	
파죽지세	4 1 0 0 0 1 - 6
피지컬	2 1 0 0 1 2 - 6
◆2경기 <6회 콜드승>	
우리OAGA	0 0 0 1 0 2 - 3
센프렌즈	3 2 2 1 0 2 - 10
▲승리투수 : 양하선	

는 이후 5회를 제외하고 매 이닝 점수를 더하면서 10-3, 6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선발 양하성이 5이닝을 던지면서 1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막고, 5개의 탈삼진도 뽑아내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추정민은 2회 그라운드 홈런으로 팀 승리를 자축했다. 한편 대회 결승은 26일 함평야구장에서 진행된다. 오전 9시 광일리그 결승이 열리고, 오후 12시부터는 무등리그 결승전이 펼쳐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400회 정기연주회 '혁명가들'

일시 : 2025-11-14(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 천영록 개인전

일시 : 2025-09-19(금) ~ 2025-10-26(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